



# HWPL Peace Education Journal

2023년 1월호  
Vol. 3





# 차례

## 01 전 세계 평화교육 MOA, MOU 현황

## 02 스페셜 코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

### - 안나 보스만

가나,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

### - 거트루드 뮐러

독일, 행동과학자, 사회학자, 정신종양 전문의

### - 이안 서

대한민국, HWPL 본부 홍보언론부 부장

## 03 평화교육

### - 줄리에타 파라스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2지역 교육감

### - 클레멘트 이로논구

나이지리아, 국제평화인재 개발센터(INETERCEP) 전무이사

### - 프라티바 싱

인도, 노이다 자그란 공립학교 교사

# 차례

## 04 학생 인터뷰

### - 모함마드 잔 카오쉬

아프가니스탄, 아마존 영어 아카데미 학생

### - 자와드 모히브자다

아프가니스탄, 아마존 영어 아카데미 학생

### - 시티 아이샤 에이 마니산

필리핀, 코타바토 라시다 통합 고등학교 학생

## 05 평화와 문화

### - 최의헌

대한민국, HWPL 본부 국내외평화교육부 부장

### - 변하은

대한민국, HWPL 본부 문화부 코디네이터



아프리카 17

- 감비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르완다
- 말리
- 부룬디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케냐
- 코모로
- 마다가스카르
- 코트디부아르
- 남수단
- 니제르
- 소말리아
- 레소토
- 콩고민주공화국

유럽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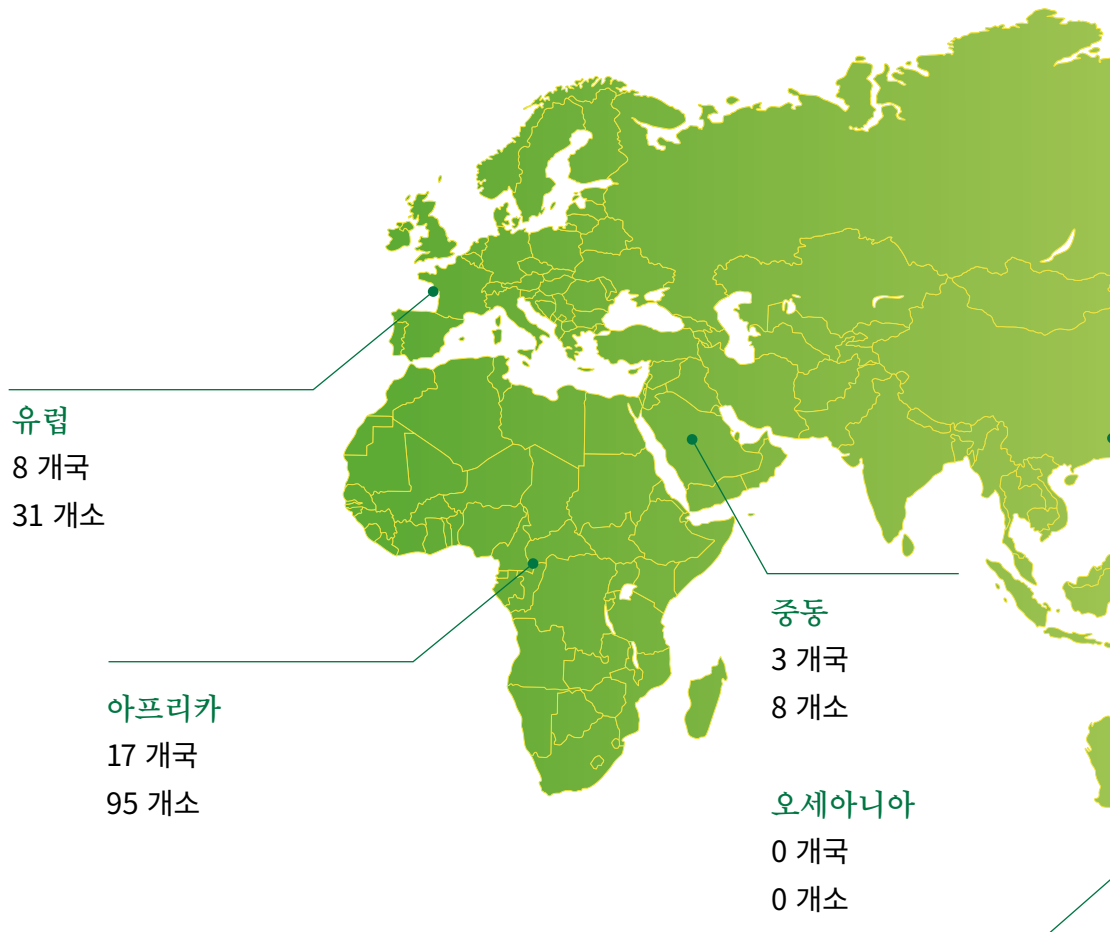
- 루마니아
- 조지아
- 북마케도니아
- 우크라이나
- 그리스
- 네덜란드
- 크로아티아
- 프랑스

중동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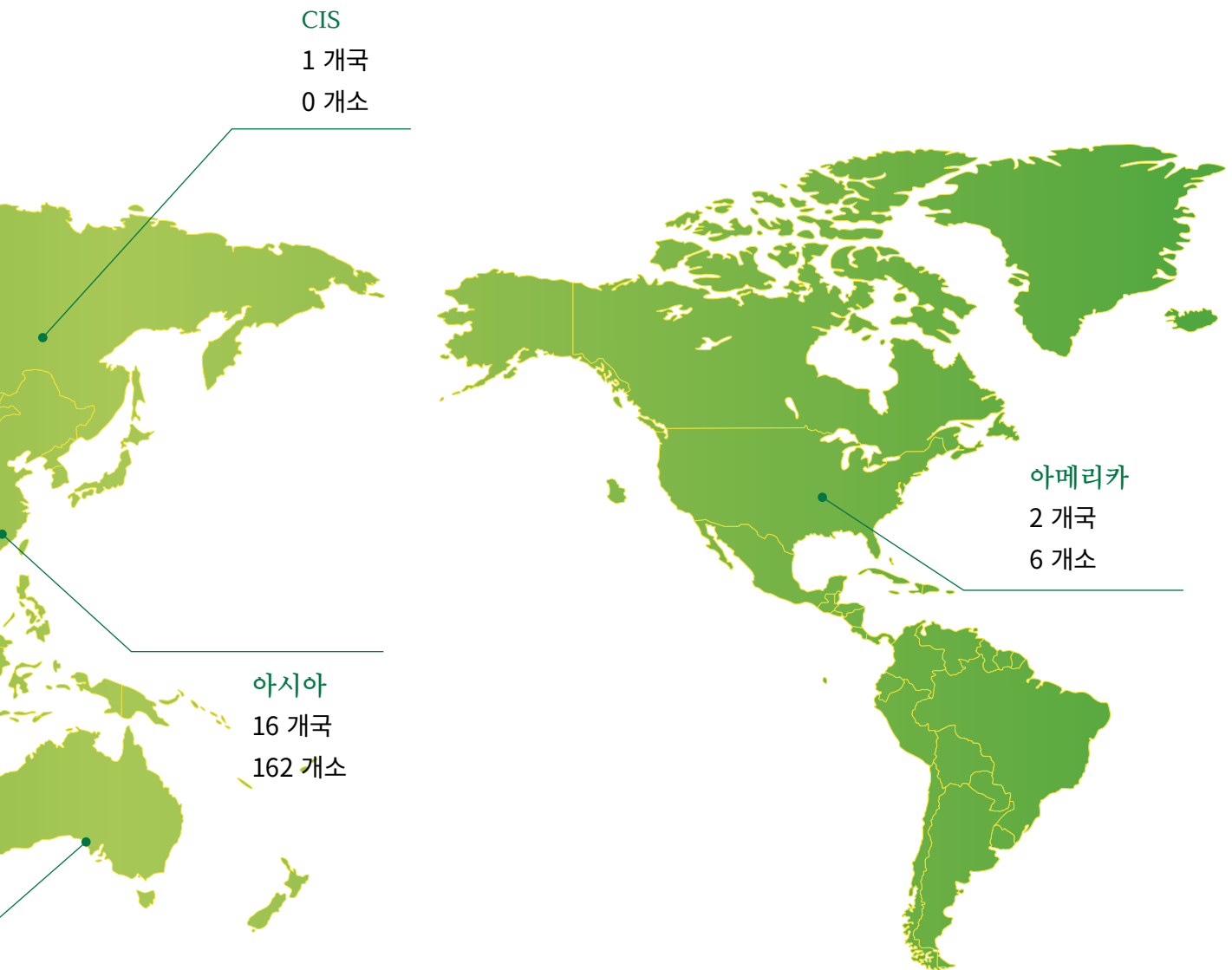
- 이라크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 전 세계 평화교육 MOA, MOU 현황

2022년 12월 15일 현재  
MOA 총 11개국 14개소  
MOU 총 47개국 303개소



CIS 1	아시아 16	아메리카 2
아르메니아	한국	미국
	네팔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오세아니아 0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 01 스페셜 코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



안나 보스만  
가나,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

##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

우리는 현재 세계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초점을 맞춘 유엔 기구로서 다른 세계적인 위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는 인도주의 상황 악화에 따라 우크라이나 학생의 교육권 보장, 교사 지원, 원격 및 디지털 학습 강화,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을 위한 자원, 전문 지식 및 조치의 동원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을 위해 일하는 난민 기자들에게 훈련과 보호 장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무력 충돌 시 문화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결과로 인한 난민들, 특히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유네스코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전 세계의 인종 차별, 인종 혐오 및 인종 혐오 범죄 근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시 주목함으로써 모든 난민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 전략 하에 아프리카에 대한 유네스코의 지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국 시민에 의해 주도되는 통합·번영·평화의 아프리카를 지향합니다. 이 목표는 아프리카연합(AU)



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광범위한 대륙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이 목표를 통해 가나 정부와 정부의 파트너들은 교육 및 지식 공유와 같은 대륙의 주요 개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특정한 위협들이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과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선거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많은 전쟁과 분쟁을 유발하는 잠재적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선거 과정이 우리 민주주의와 정부의 안정성에 안보 위협을 가하는 약한 연결고리로 남아 있습니다. 가나에서는 선거 위원회의 업무 역량이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정부의 반헌법적인 변화가 대륙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연대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대와 우리가 형성한 문명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많은 무덤에서 피와 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자 존경을 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시는 전쟁의 재앙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부터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트루드 뮐러

독일, 행동과학자, 사회학자, 정신종양 전문의

## 폭력의 시대에서의 비폭력

정신종양 전문의로 일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온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양국이 가까운 친구와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친척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력감에 휩싸이고 말문이 막힙니다. 갑자기 적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다른 나라에서 비밀리에 만나려고 하고, 누군가는 연락을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개인적으로 가깝고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적의 이미지를 받아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폭력은 언제나 계속되었으며 자행되어 왔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폭력 없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서로 다른 모든 종류의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 서로 간에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체는 에너지, 음식 및 신진대사를 얻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성은 타고난 것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무리 생활이 더 안전하며 인류는 무리의 지원 없이는 조건부로만 생존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무리를 지음으로써 무리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무리 내 분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상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물교환이 더욱 중요해졌고, 새로운 지역과 자원이 개발되었습니다. 각 집단은 구성원들의 생계를 보장받기 원했기 때문에 자원, 토지, 사냥터, 방목지, 건축지 등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원시 생활의 초기에는 죽음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덜 무섭게도 전사와 사냥꾼은 아주 자연스럽게 죽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사냥과 싸움 외에 공감과 이타주의 능력은 유용하고 진화적인 성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집단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고, 회복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했으며, 그들의 생존은 훨씬 더 확실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오늘날에도 소위 장수촌에서 아직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한 물리적 보호 메커니즘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정서적 및 심리 사회적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침착함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와 위협 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얼어붙게 만드

는 스트레스 체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체는 생존을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매우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폭력 및 공격성 프로그램”은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어 자동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폭력을 제때 인식하여 자제한다면 폭력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열판 위의 손과 유사합니다. 사람이 열판이 뜨겁다는 것을 인식하면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판이 뜨거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지면 고통과 공포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이 촉발되고 손이 자동으로 순식간에 떼어집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받거나 큰 위협을 느낄 때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공격자(로 인식하는 사람)를 모욕하거나 밀거나 때립니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자기 방어와 더 가까우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형태의 폭력은 비난을 받습니다. 즉, 이러한 폭력은 실제 위험한 상황과 방어 욕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폭력을 계획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방어 수단을 고안합니다. 자원 축적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원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을 축적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느낌으로써 특권을 누리려는 권력 동기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는 개인과 집단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체적으로 방어하고 권리를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원래 사냥을 돕거나 자신의 소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벽, 성 및 국경은 요새나 명확한 경계를 구분 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폭력과 전쟁이 집단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의 이익은 집단의 이익의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부의 축적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잔인한 무기로 무장함으로써 이미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끊임없는 소유물 축적과 전쟁과 파괴를 통해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고 자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 전에 깨달았습니다. 위협이 사람들을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만들며, 싸우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싸움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을 때까지 싸웁니다. 전쟁과 싸움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을 갈망하고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폭력과 비폭력의 시대가 항상 번갈아 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바꾸고 싶다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폭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박한 폭력을 적시에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종종 이러한 중요한 평화 사업을 합니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가정에 살아가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고, 공통된 가족 양식에서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전쟁 지역에서 공식적으로는 적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야 이러한 영웅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매우 도움이 되는 평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평화 사업은 사람들을 친구와 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상품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고, 지구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의 상호 안녕과 공존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평화 사업은 물자가 부족해지거나 위협에 처하거나 명성을 잃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내면의 적개심이라는 악마를 진정시킵니다. 우리 내면의 적개심을 지속적으로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면 언젠가는 그들이 완전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안 서

대한민국, HWPL 본부 홍보언론부 부장

## 푸틴의 오판: 민주주의와 시민

올해 초 필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일어나더라도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 경제의 하락 및 에너지 자원의 상승 등 국제 환경 때문이었다. 또한 나토의 동진이 분명 러시아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나토에 속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양측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이 회피될 것이라 보았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한정되어 있는 지금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사실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나의 빗나간 희망은 국가를 합리적 존재로 전제한 것에서 출발한다. 물론 러시아라는 국가와 푸틴은 여전히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합리적 존재이다. 단, 푸틴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요인들을 이해한 방식은, 우리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동일한 요인들을 이해한 방식이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게 된 요인들에 있어서 푸틴의 오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자원에 대한 오판

푸틴의 첫 번째 오판은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푸틴은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졌던 듯하다. 러시아가 공급하는 가스관은 원래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을 거치는 육로에 설계되어있어, 가스관 경유에 대한 비용을 통과하는 국가들에 지불해야했다. 2012년 러시아는 발트해를 통과하여 독일까지 직접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노르트스트림2라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각국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더욱 높여 경제적 연계성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분열시키려는 러시아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보였다. 노르트스트림2 공사 초기부터 미국은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2021년 가스관이 완공되어 독일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값싼 에너지 자원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 앞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40% 이상인 독일은 2월 초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눈을 감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타격을 고려할 때, 독일은 러시아의 침략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에 헬멧 5천개 만을 지원하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보내지 못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들고 일어난 것은 독일 시민들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전 세계 시민들이 반대를 외치는 흐름 속에서, 베를린에서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쇼츠 총리의 소극적 태도는 이전 메르켈 총리가 보였던 유럽을 주도하는 독일의 강력한 리더십과 대조되는 것처럼 보였다.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독일 정부는 2월 말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와 전차, 석유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은 2월 22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서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했다. 유럽에서 가장 소극적일 것 같았던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여기에 중립국 스위스까지 EU의 제재를 채택하였고, 군사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무기지원에 나섰다. 푸틴의 오판은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유럽의 민주주의 체제였다.

### 국제질서에 대한 오판

둘째는 러시아와 국제경제 관계에 관한 푸틴의 오판이다. 러시아는 세계 11위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영토의 크기와 산업구조를 보면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 10위 대한민국의 경제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배터리,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성장동력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는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푸틴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 또는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세계 에너지 자원 가격 동향이 곧 국가 경제의 환경과 푸틴의 정치적 위상 및 안정과 연결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 점에서 푸틴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듯하다.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이후로는 4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도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66%, 유럽 국가들은 약 100%)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급망 악화와 급속히 높아지는 원자재 수요는 러시아의 자원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요인이 된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견디며 기초체력을 쌓았다고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하더라도 러시아가 제재를 견딜만한 축적된 경제적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기회로 보게 하였다. 물론 이 모든 전제는 과거 크림반도 침공 때처럼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빠르게 점령하는 것이었기에 결과적으로 푸틴의 오판이 되었다.

더불어 세계적인 반전 여론과 러시아 침공에 대한 비판은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여겨져 사업상의 리스크를 높이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원유 가격을 할인해도 구매하는 업체가 줄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산 원유로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정유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밝혔으며, 최근 미 의회에서도 러시아산 원

유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푸틴의 오판은 자유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현 시대 국제 무역 질서이다.

## 자국에 대한 오판

제재로 거래가 중단되면 러시아 기업들은 수출 및 거래가 금지되고 대금도 받지 못하며 은행 대출도 상환하기 어려워지기에 사업상의 어려움이 커져 파산 위기에 몰린다. 러시아 은행들은 기업의 부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유동성이 악화된다. 루블화 가치 폭락 혹은 상실은 일반 시민들의 구매력이 하락하거나 소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기업 상황의 악화는 고용문제로 연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은 물론이고 현금 확보를 위해 시민들은 ATM으로 몰려갈 것이 명백해졌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9.5%에서 최대 20%로 인상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이자 지급, 증권 매도를 금지시켰으며, 거주자의 해외은행 자금 이체를 제한시켰다. 루블화의 가치가 추락하고, 제재로 자원 수출입이 어려워져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시장은 신뢰를 잃고, 물가는 치솟았다. 세계의 다른 시민들과 같이,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가혹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지지를 얻고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을 선언했던 과거처럼,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서 러시아 국민은 푸틴에 대한 지지는 굳건할 것인가? 반전시위가 러시아 내부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푸틴의 오판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였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판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을 거친 우크라이나는 많은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우크라이나는 친러와 친유럽으로, 동과 서로, 경제적 양극화로 분열적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결사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주역이 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상은 1991년에야 등장한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00여 개에 달하는 민족을 가진 이 국가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존과 조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가난한 다수의 국민은 친러-반러의 분열적 구호를 외친 억만장자 엘리트가 아닌, TV 프로그램에서 자국의 현실을 개탄하고 부패한 정치를 비판했던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치적 위기에 자국을 탈출한 과거 엘리트 대통령과 달리,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맞서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있다. 모순적 현실에 변화를 외치며 국민의 힘으로 정당한 민주적 권력을 창출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대조적으로 소련 붕괴 후의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성취하지 못했다. 20년 넘게 권좌에서 “강한 러시아”를 외쳐 온 푸틴은 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만났다. 그것은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오늘의 우크라이나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다. 푸틴의 오판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적 성취에서 나온다.

지구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HWPL이 올해 성명서와 여러 행사에서 밝힌 우리의 사명은 누구도 전쟁에서 희생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평화이다.



# 02 평화교육



줄리에타 파라스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2지역 교육감

## | DPCW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 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평화를 찾으려 모험을 하거나 어떠한 길을 가로질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평화의 개념은 그것을 경험할 때 그 가치를 더 잘 알게 되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적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다룰 때 평화를 달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민과 국가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즉,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회가 영적 신념들의 차이, 문화, 철학을 수용할 때 매우 경쟁적이며 복수심에 불타는 곳에서 어떻게 자비롭고 협력적인 곳으로 변하는지, 그 깨달음이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본 것과 같이 말입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을 지지하기 위해, 교육 부문은 평화의 개념을 학습 과정에 통합하는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학습 계획이 지역화되어 있고 커뮤니티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정책의 시행은 커리큘럼에 DPCW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WPL과 로날드 아다맛 위원 이 대표하는 고등교육위원회 간에 MOA는 2018년 1월 23일에 서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와 위원회의 성공적인 행사의 결과로서 고등교육위원회는 평화 연구 및 교육을 모든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 커리큘럼에 통합하라는 2019년 행정명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화 연구 및 교육을 각각의 커리큘럼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만 다음 중 하나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역사, 사회과학,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인문학 등의 다른 과목과의 통합
2. 선택과목으로 제공

또는 국가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지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평화 연구 및 교육은 “다른 고등교육기관을 독려하고 평화 연구/교육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해 잠재적인 평화 교육자를 훈련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은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 또는 평화 교육에 대한 교수진의 역량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합니다.

이 각서는 고등교육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어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는 페이스북에 게시되었고 언론이나 개인 계정(예: 2019년 4월 9일에 “고등교육위원회가 대학에 평화와 원주민 통합 연구를 교과과정에 통합하도록 지시함”이라는 기사를 게시한 마닐라 뉴스)을 통해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유사하게, 원주민 통합 연구 및 교육을 고등교육기관 커리큘럼에 통합에 대한 고등교육위원회 행정 명령 제2호는 “빈곤 및 인권 침해와 같은 원주민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목적”과 이는 또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 정의에 대한 염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커리큘럼에 원주민 통합 연구/교육 통합에 대한 2019년 행정 명령 제1호의 방식과 동일하게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등교육위원회 지역 사무소는 이 두 행정명령이 고등교육기관 구현되는 것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전략은 고등교육기관이 평화교육 및 연구, 원주민 통합 연구 및 교육, 지역 지식에 대한 연구 및 확장을 위한 제도적 의제에 포함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화의 통합과 원주민 연구 및 확장은 소개, 연구, 확장이라는 고등교육의 세가지 기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학계가 다양한 문화와 평화의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함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학계 구성원들이 더 넓은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 다른 사회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평화는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친구, 동료 및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위원회의 노력은 이러한 사업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변혁을 통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을 지지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속할 것입

니다. 결국 평화를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되며 결국에는 평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길이 될 것입니다.

끝마치며,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부하이!



클레멘트 이로논구

나이지리아, 국제평화인재 개발센터(INETERCEP) 전무이사

## 지역 사회의 평화 구축, 통일 및 화합을 위한 도구인 문화적 댄스

유네스코에 따르면 평화는 전쟁보다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폭력이 없고 조화롭게 살기 위한 기초로서 정의와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댄스는 미적인 가치로 가득하며, 각 사회를 구별 짓고,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을 명확히 표현하며, 이로써 우리 사회 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제 평화 인재 개발 센터(INCTERCEP)는 HWPL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INTERCEP의 단체원들은 HWPL의 사업인 평화교사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INTERCEP 단체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기뻐했고, 프로그램은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이지리아 두 개 주의 두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화교육은 첫째, 나이지리아 플라토 주 조스 지역 엘림 인터내셔널 칼리지 아바토이르, 둘째,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 발달 교육과 농업 연구소 (IDEAS)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8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배운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는 이들이 속한 공동체와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교사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은 다양성, 조화, 가치 인지, 인간의 욕심, 관계, 감사, 배려, 희생, 용서, 존중, 유산의 보존, 평화의 법과 평화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생들은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가치 인지, 인간관계, 존중, 평화, 문화적 유산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들을 문화적 표현과 댄스를 수단으로 2022년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의 문화를 전파하는 HWPL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교육생들은 세계에 완전한 균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DPCW)의 내용을 자신들의 문화적 댄스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교육생들은 HWPL의 이만희 대표님의 철학, 곧 국제적 갈등의 완전한 해소에 대해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의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만희 대표님이 이끄는 HWPL의 비전은 국제 평화 인재 개발 센터 전무이사인 클레멘트 이로논구인 저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특히 이만희 대표님의 세계평화선언문 제9주년 기념식에서 말씀해 주신 간증과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대표님의 비전을 확고하게 만든 별과의 만남에 대한 증거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레멘트 이로논구, 저는 이 대표님과 별의 만남을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을 평화의 왕자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베들레헴의 별과 연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감탄은 곧, HWPL 평화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풍부하고 진정한 가치 중심적 플랫폼이며, 지역사회의 평화구축의 소통의 도구로서, 문화적 댄스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구축해갈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댄스가 내비치는 평화의 언어는 특정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함을 인지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문화적 댄스의 제목인 kpila-kulu는 티브 족(나이지리아 남동부에 사는 부족) 언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 더 나아가 서아프리카 내에서 평화와 화합을 전파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HWPL의 평화사업은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 서쪽에 위치한 그보코IDEAS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평화구축 역량을 갖추게 하여 학교의 교장인 예레미아 코그바를 중심으로 문화적 댄스를 만들어 가도록 했으며, 이는 학교와 공동체 전체에 평화와 유대감이 전파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문화적 댄스는 공동체, 학생, 부모, 그리고 다른 개개인에게 평화와 화합 속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했습니다. 행사 중에는 공동체 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평화, 화합, 유대감을 상징하고자 전통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평화 인재 개발 센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특별협의 지위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평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아원!





**프라티바 싱**

인도, 노이다 자그란 공립학교 교사

## 노이다 자그란 공립학교 - HWPL과의 여정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를 전쟁으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연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에게는 전 세계가 평화로운 숲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는 각자 마음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에 우리는 이 세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입니다. 그것은 도덕성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평화는 힘(무력)으로 지킬 수 없으며, 평화를 이해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가치와 원리를 배우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은 평화를 이루고 내일의 세계를 건설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관용과 열린 마음의 자질을 갖춘 내일의 지도자들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고 평화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가장 뛰어나며 성공한 교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불화나 적대감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평화에 대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감사, 희생 정신, 친절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배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웃어른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더 관찰력이 생기며, 회복력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자연과 새, 동물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관찰하기 시



작하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관찰하기(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한 평화의 특성은 우리가 욕심을 극복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격이 되도록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그란 공립학교 노이다의 평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도움, 감사, 희생 정신, 웃어른들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같은 가치들로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의 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더 많은 인내심과 관용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문화는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명언,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전 세계에 퍼뜨린 찬란한 빛이 지구를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 03 학생 인터뷰



모함마드 잔 카오쉬

아프가니스탄, 아마존 영어 아카데미 학생

## 평화교육 수업은 왜 중요한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전쟁은 증가했습니다. 매일 밤 TV를 통해 우리는 싸우고, 누군가의 돈을 훔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같은 나쁜 뉴스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평화교육 수업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첫째, 평화교육 수업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수업에서 의견을 나눌 때, 그들의 정보의 양은 더 많아지고, 평화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평화교육 시간에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세계평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화교육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무례하거나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 모두를 위해 우리는 사과하고 우리의 잘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교육 시간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즉 우리의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혹은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 수업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다면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지 않지만, 평화교육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 교육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제 행동에 대해 한 시간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평화 교육 수업에 참여했을 때,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밤 20분 동안 하루 동안의 저의 모든 행동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특징들을 발견한다면, 저는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 수업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평화교육 수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교육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나쁜 행동을 받아들이고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행동이 사회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용한 수업 중 하나이며, 저는 당신이 이 수업에 참여하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특성들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와드 모히브자다

아프가니스탄, 아마존 영어 아카데미 학생

## I 인간의 평화 추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평화는 가지에 행복의 열매를 달고, 잎맥을 통해 행복이라는 산소를 아낌 없이 퍼뜨리는 나무를 닮아 있습니다. 평화는 수십 명의 광부와 보석세공사의 노력을 통해 추출된 황금 동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화교육 시간에 배웠듯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현명한 선조들의 가르침처럼, 평화라는 귀한 보석의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점들을 스펙트럼의 다른 색깔의 띠로 봐야합니다. 만약 그 차이를 감내하지 못한다면, 사회나 세상 또한 그들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만의 질서를 따라야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역사는 그러한 과격한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인권선언문 첫 번째 조항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조항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평화는 우리 마음에 평화의 요소 중 하나인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랑을 키우기를 요구합니다. 우선, 사랑은 보살핌과 걱정 같은 강하고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누군가가 타인을 위주로 행동하게도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방면이 잘 조화를 이루면 사랑은 어떠한 것에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처받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인도주의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 극단주의, 욕심, 이기심, 자만심, 오만과 같은 평화의 방해요인이 이타심, 친절, 형제애, 단결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미 헨드릭스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힘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면, 배려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그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겉으로도 평화를 마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내적 평화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을 다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이

타주의자로서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책임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평화를 찾는 이에게는 배려가 필수이지만, 존중과 결합되어야만이 온전해집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먼저 인간은 지식이 적고 자유 의지가 적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의 모든 결과를 계산할 수 없으며(낮은 인식)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달성하지는 못합니다(자유 의지가 적음). 우리가 인간의 악한 행동을 목격할 때 그들이 파괴적인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 행동의 모든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들은 언젠가 후회하고 사과를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 만약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면, 왜 우리는 실수했던 일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을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용서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족함 없이 물을 구할 수 있는 용서의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화 시민의 또 다른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관대하게 누리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건강, 생각의 힘, 아름다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받을 디딜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 그들의 무조건적인 지지, 친척, 친구, 선생님, 우리가 우연히 마주하는 사람들, 지구, 태양, 달, 강, 나무, 허브, 산, 외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대가 없이 받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양심이 그들에게 빛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깊은 감사입니다. 비록 말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공해주는 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맘 알리의 말을 인용하여 한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피조물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 자연, 부모, 지역 사회 및 기타 많은 원천으로부터 관대함과 베품을 넘치게 받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를 구할 것인지, 타인을 구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는 그들 자신을 구할 것을 선택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매우 적지만 타인을 구하기를 선택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은 몇몇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듯,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타인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희생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어 관중석을 떠나 그 결과에 대한 믿음직한 희망으로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수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행성을 더 좋게 만들 책임은 외계와 다른 행성에서 온 누구도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고하자면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에 긴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스템 사고의 기술의 저자 스티븐 슈스터의 표현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

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HWPL과 Amazon English Academy 선생님께서 운영한 평화교육 수업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시 짚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들어가는 열쇠임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살기 위해 있어야 할 산소와 같습니다. 이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할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요점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악과 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물을 받았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평생 동안 이어 가야 합니다(희생). 마지막으로 평화에는 용기, 위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쉽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합시다!



시티 아이샤 에이 마니산

필리핀, 코타바토 라시다 통합 고등학교 학생

## 분쟁의 경험

저는 시티 아이샤 에이 마니산이고, 9학년입니다. 저는 코타바토 라시다 통합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15살입니다.

제가 2학년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맞은 편에서 총소리가 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얘들아, 얼른 피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제 사촌들은 이미 도망치며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달리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피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께서 우리는 사원(이슬람사원)으로 갈테니 얼른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다른 집들과는 달리 사원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5학년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이었는데 총을 든 두 명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두 남자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말라이트(자동 소총의 일종)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로 아말라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들이 왜 저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니산, 밖에서 얘기하자.”라며 저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곳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 세 사람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군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서 계셨지만 그 두 사람은 대나무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쏘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확실히 저희 아버지를 죽기 전까지 총 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엄마, 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무장한 두 남자는 공중으로 총을 쏘면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들에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총에 맞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바실란주에서 겪은 일과 저희 아버지 사건 이후에 평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평화의 세상을 원합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평화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싸움도 없고, 더 이상 총격전도 없어야 합니다. 세계가 평화로 가득하다면, 국가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종이나 국경 혹은 테두라이 부족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는 모두 동등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되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 04 평화와 문화



최의현

대한민국, HWPL 본부 국내외평화교육부 부장

## 제목: 유네스코 유산 보호 사업과 평화와의 관계

2015년 1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전쟁과 분쟁에서 박물관의 역할(Cultural Heritage at Risk, the Role of Museums in War and Conflict)’ 심포지엄에서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문화와 유산의 보호는 회복력, 화해,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인도주의적 안보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또 2014년 4월, 제네바 대학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합의만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유네스코의 강한 신념을 강조하면서, “유산 보호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닌 인간 생명 보호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작전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문화유산과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문화유산: 수단 예시(Cultural Heritage As a Tool For Peace: A Case of Sudan)’라는 논문에서는 “분쟁 후 상황에서 문화유산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동체가 정상 의식을 되찾도록 돕고,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끈질긴 수단이 된다.”고 발표했다. 위의 발표들은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 사업의 시행 의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 사업은 단순한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넘어서, 문화 다양성 회복을 바탕으로 대화, 화해, 평화의 기틀을 세우는 인도주의적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전쟁과 폭력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회복과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40~1945)’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을 증거하는 장소로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1996년에는 일본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이 건물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에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로, 지금도 폭발 직후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핵무기의 위력과 참상을 직접 보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세계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1978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네갈의 고레섬은 15~19세기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예무역 중심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상기시키는 곳이다. 199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로벤섬은 넬슨 만델라가 거의 20년간 구금되었던 장소로 유명하다. 이 섬은 20세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하에 정치범을 수용했던 곳으로, 억압과 인종차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둔 사실을 증언하는 곳이다. 인류 역사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간직한 이 장소들은 전쟁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루 역할을 하며,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 제32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조 1항에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정신과 문화, 풍부한 지식, 기술에 있다.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유산이 형체가 뚜렷한데 비해 무형문화유산은 형체가 없는 기억문화 또는 정신문화로, 대부분 전승자라는 매개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를 인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과 전수에 힘쓰고 있다. 곧, 사람 자체가 정신과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유산인 것이다.

사람은 유·무형문화유산의 창조자이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연결점으로서, 정신과 문화, 지식, 기술 등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특정 무형문화유산의 전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각종 지식을 담고 있다. 사람이 곧 유산이라는 인식의 확장은 유산의 보존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시킨다. 사람을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길 수 없게 되고, 유산의 보존이라는 개념 안에 전쟁과 폭력,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유산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쟁 중 유산을 지키려는 노력부터 유·무형문화유산의 창조자이자 전수자인 사람 자체를 유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노력까지, 모두가 평화를 위한 일이다. 나 자신도 내 삶이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평화는 나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임을 느낄 것이다.





변하은

대한민국, HWPL 본부 문화부 코디네이터

## ICAN 비핵화 운동과 DPCW가 나아갈 방향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특수 군사 작전’을 선포한 날,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전화였다. “우리 딸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 폭발 소리가 많이 들려. 우리 딸 앞으로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것만 알면 돼.” 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한 전화였다. 유엔은 25년 만에 긴급특별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공개한 한 러시아 병사의 문자에는 영문도 모른 채 민간인까지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한 괴로움이 담겨 있었다. 러시아 포로군의 기자회견에서 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피를 원합니까? 한 바보만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 성토했다. 우크라이나인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평화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감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는 여러 역사적인 선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이하 ICAN)’의 비핵화 운동을 분석하고, DPCW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CAN은 핵무기 폐기를 목적으로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의(IPPNW)가 발의하여 2007년에 결성된 국제 NGO이다. ICAN은 2007년 법적, 정치적 변화 상황을 반영한 핵무기금지협약안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코스타리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동 명의로 핵무기금지협약안을 2007년 12월 UN총회에 제출했고, 당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해당문서를 UN 공식문서로 지정하여 전체 회원국이 회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0년 평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17년 7월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이하 TPNW)’이 채택되었다. TPNW는 핵무기의 제조, 소유 및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핵무기의 사용 뿐만 아니라 위협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TPNW 체결을 위해 노력한 ICAN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ICAN을 선정했다. ICAN은 TPNW가 채택되기까지 어떠한 전략을 갖고 활동을 펼쳤을까?

첫 번째는 활발한 온라인 활동이다. ICAN은 젊은 세대가 핵무기의 위험성을 깨닫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계정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핵무기의 위험성, 핵무기 사용의 역사, 핵무기 금지 조약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 홍보 및 교육 도구로 활용했다. 유엔군축연구소(UNIDIR)는 오늘날 캠페인의 ‘the trending’ 도구는 온라인 청원이며, 온라인 활동은 대중의 인식과 국가 지도자를 촉구함에 있어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각국 정치인 및 유명인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 ICAN은 핵무기 금지에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각국 전현직 정부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았으며, 유명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을 통해 핵무기 금지를 홍보했다. 세 번째는 NGO와의 다양한 활동이다. 2013년 3월, 오슬로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ICAN은 70개국, 500명 이상의 평화운동가들과 국제사회의 핵무기 금지 노력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고, 2014년 9월 26일, 세계 핵폐기의 날을 기념하여 파트너 단체들과 전 세계에서 관련 영화 상영, 콘서트, 강연회,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다. 학생들이 핵무기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게 소책자 “Learn Peace”를 출판하여 핵 위기 역할극, 핵폭발 설명, 종이 학 접기 활동 등을 담았다. 2012년 9월, 일본 히로시마의 ICAN 운동가들은 전 세계 모든 대통령과 총리에게 종이 학 1,000개를 접어 보내며 국제적 핵무기 금지를 지지하는 답신을 요청했다. 또 2012년 3월에는 “Don’t Bank on the Bomb”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관련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각국의 금융 기관에서 핵무기 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여 핵무기 금지 조치를 도왔다.

이러한 ICAN의 여러가지 활동 끝에 TPNW는 유엔 회원국 122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17년 7월 7일에 채택되었다. 2020년 10월, 온두라스가 50번째로 비준하며,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후에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TPNW는 2021년 1월 2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TPNW에 찬성했던 122개국 중 실제 서명을 한 나라는 53개국, 국내 비준까지 완료한 나라는 가이아나, 바티칸, 태국 3개국뿐이다. 여기에 공인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비공인 핵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협상 단계부터 거부했다. 정작 중요한 핵보유국은 불참한 핵무기 폐기 조약이 향후에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또한 핵무기 사용 위협도 금지한다는 TPNW의 조항이 무색하게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하며 전 세계에 핵 위협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핵무기 보유국은 경쟁국이 동일하게 감축하고 있다는 보장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의 근본보다는 전쟁의 수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TPNW는 핵무기 폐기에 효과적이기보단 상징적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ICAN의 비핵화 활동과 TPNW 채택이 의미 있는 일임은 확실하다. 또한 ICAN의 활동은 HWPL의 평화 활동과 닮은 점도 많고, 배울 만한 점도 많아 보인다. 다만 이 조약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감축하기 이전에 핵무기를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HWPL은 2016년 3월 14일에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하 DPCW)을 공표하였다. DPCW는 현 시대 지구촌의 다양한 분쟁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해 각 계층이 행해야 할 평화적 원칙을 담고있다. DPCW 10조의 평화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평화교육, 9조의 종교 간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사무실은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는 ICAN 비핵화 활동을 본보기 삼아 DPCW가 실현되도록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우리를 없애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쟁을 없앨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서두에 포로가 된 러시아군이 말한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